

# 博物館 資料로서의 教科書와 教育資料\*

裴 漢 極\*\*

## 目 次

- |                         |                         |
|-------------------------|-------------------------|
| I. 머리말                  | IV. 教育專門博物館과 教科書 및 教育資料 |
| II. 博物館과 博物館 資料         | V. 맺음말                  |
| III. 博物館 資料로서 教科書와 教育資料 |                         |

## I. 머 리 말

금년은 1895년 新 教育令이 공포된지 100주년이 되는 해이며, 光復 教育 5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다. 그리고 韓國大學博物館協會 創立 34주년, 教育大學 開校 33주년이 되는 우리나라 教育史에 있어서 매우 뜻 깊은 해에 우리나라의 교육문화유산인 교과서와 교육자료에 대해 대학박물관의 입장에서 고찰해 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교육은 國家의 百年之大計이며, 국운을 좌우하는 國家之大事로서 인류 문화가 시작된 이래 계속되어 왔다. 우리나라는 단군 조선의 흥익 인간의 건국 이념 아래 나라를 개국한 후 高句麗의 太學과 경당, 新羅의 國學, 百濟의 오경박사 제도, 高麗의 國子監·향학·구제학당 그리고 朝鮮時代의 성균관·향교·서원·서당의 전통교육 기관이 있었고, 개화기의 신식교육이 시작된 이래 수많은 교육기관이 새로 설립되었으며, 일제하에서도 민족의 자주독립과 인재양성을 위해 수많은 사립학교가 세워졌으며, 광복 후에는 우후 죽순처럼 근대 교육을 위한 국공립과 사립학교가 설립되었다.

이러한 교육의 오랜 전통을 가진 우리나라는 수많은 教育文化 遺産을 남겼다. 그 중에서도 각종 教科書와 教育關係 자료는 우리나라의 학문과 예술을 비롯한 모든 문화의 중요한 부분으로 남아 있다. 전통적으로 사용되어 왔던 敎典의 教科書로서는 千字文, 童蒙先習, 小學, 明心寶鑑, 通鑑, 四書五經 등이 있었고, 문호개방으로 시작된 開化期에는 신학문을 교육하기 위하여 국어·수학·역사·지리·과학·생물·정치·경제·법률·농업·상업·외국어·기술·음악·미술·체육 등의 교과서가 발간되어 각급 학교 교육에서 교수·학습되었다. 그리고 일제시대를 거쳐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각종 교과서와 교육관련 자료는 헤아릴 수

\* 본고는 大邱教育大學校 博物館에서 개최된 韓國大學博物館協會 제38회 學術講演會에서 발표된 내용을 보완하여 실은 것이다.

\*\* 裴漢極, 大邱教育大學校 社會科 教授 同 博物館館長

없이 많다. 각종 교과서와 교육관련 자료는 당대의 學問의 總決算이요 當代 文化의 結晶體이다. 이것들은 우리의 所重한 文化遺産이며 하나의 생생한 歷史 資料다. 그러나 이러한 교과서나 교육자료에 대한 수집과 보존·연구에 대한 관심은 근자에까지도 일부 소수의 수집가·전문 학자와 몇몇 기관에서 가져 왔을 뿐이다. 특히 교과서는 博物館 資料로 생각하기보다는 주로 圖書館 資料로만 인식되어 왔다. 1980년대에 들어와서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파동 이후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교과서센터를 만들고, 1990년대에 삼성출판박물관과 한밭教育博物館에서 教科書를 博物館 資料로 인식하고 본격적으로 수집 전시하여 교육계 종사자들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도 큰 관심과 호응을 얻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한국대학박물관협회 제30회 특별전인 「한국의 역대 교과서와 교육자료 특별전」<sup>1)</sup>을 계기로 교과서와 교육자료를 박물관의 입장에서 그 가치와 의의를 새롭게 조명해 보고자 한다. 먼저 박물관과 박물관 자료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어서 교과서의 변천과 교육자료의 종류를 살펴보고, 다음은 교과서와 교육자료의 박물관 자료로서의 가치를 규명하고, 마지막으로 교과서와 교육 관련 자료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교육박물관의 필요성과 그 활용 방안에 대해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 II. 博物館과 博物館 資料

먼저 博物館의 意味를 살펴보겠다. 1991년에 새로 제정 공포된 博物館및美術館振興法(1991. 11. 30 법률 제4410호)의 정의에 따르면 博物館이라 함은 “인류·역사·고고·민속·예술·동물·식물·광물·과학·기술·산업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보존·전시하고 이들을 조사·연구하여 문화·예술 및 학문의 발전과 일반 公衆의 文化教育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sup>2)</sup>

그리고 국제박물관협의회(ICOM)에서는 “박물관은 연구·교육 및 오락의 목적을 위해서 인간과 인간환경의 물질적 증거를 수집, 보존, 연구, 전달, 전시하며, 사회와 사회발전에 봉사하고 대중에게 공개되는 비영리적이고 항구적인 기관이다.”<sup>3)</sup>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난영 교수는 “박물관이란 조사, 연구, 감상의 대상이 되는 것들을 수집하여 그것을 담은 건축물을 뜻한다”고 정의하고 있다.<sup>4)</sup> 이러한 정의를 종합해 볼 때 박물관은 인류와 관련있는 모든 물

- 
- 1) 大邱教育大學校博物館, 『한국의 역대 교과서와 교육자료』, 韓國大學博物館協會, 1995.
  - 2) 博物館 및 美術館 振興法 第2條(법률 제4410호, 1991. 11. 30)
  - 3) ICOM STATUES, Article 2-Definitions; A museum a non-profit making, permanent institution in the service of society of its development, and open to the public which acquires, conserves, researches, communicates, and exhibits, for purposes of study, education and enjoyment, material evidence of people and their environment.
  - 4) 李蘭暎, 博物館學入門, 三和出版社, 1993, p. 10.

질적 자료들을 수집·보존·전시·조사·연구하여 모든 사람들의 학문·예술·문화·교육·오락 등 人間의 幸福을 위한 “人類文化와 人間環境에 관한 모든 것”을 소장하고 있는 機關임을 알 수 있다.

우리 나라의 博物館의 歷史도 광복 후만 치더라도 5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200개가 넘는 각종 박물관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博物館學概論에 관한 서적도 단 한권 밖에 없었으며 4년제 대학에 박물관학과를 두고 있는 대학은 아직 한군데도 없다. 최근에 와서 대전보건전문대학에 처음으로 박물관과가 설립되었을 뿐 博物館學이 제대로 정립되지 못한 가운데 있다. 1984년에 제정되었었던 과거의 박물관 법에는 박물관의 목적을 “社會教育”에 이바지한다고 명시하고 있었으나 새 博美法에는 “文化教育”에 이바지한다고 애매한 정의를 하고 있다. 이는 아마 사회교육은 교육부 소관이기 때문에 애매한 문화교육이란 새로운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박물관과 미술관이란 독립된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박물관 용어를 혼동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마치 미술관은 박물관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독자적인 시설인양 부연하고 있다. 미술관이란 많은 박물관 가운데 하나의 부류에 속하는 것이므로 구태여 미술관을 진흥시키기 위한 법이라면 이미 博物館法이 존재하는 이상 미술관 진흥을 위한 特別法이 제정되어야 마땅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sup>5)</sup> 일본의 경우는 모든 박물관이 文部省 傘下에 관할되어 있으며 박물관법도 교육법 중의 하나인 社會教育法에 의거하여 社會教育에 이바지한다고 명시되어 있다.<sup>6)</sup> 때문에 모든 박물관이 문부성 산하에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國家의 教育理念을 具現하는데 目的을 두고 있다.

아직 우리 나라 박물관법은 그 법 정신이 문화재보호법의 연장 선상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가의 문화재를 보호하고 관리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으며 국가의 교육정책의 차원이 아닌 국가의 문화정책의 차원에서 박물관을 보고 있다. 그러나 박미법이 어떤 제재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듯 振興法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어, 박물관을 진흥하고자 하는 국가의 의지를 강력히 나타내고 있다는 것은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여전히 일반 공중의 문화 “교육”에 이바지한다고 되어 있어 비록 교육적 의미가 弱化되었지만 궁극적으로 教育에 이바지한다는 事實을 밝히고 있다.

博物館을 博物館學的으로 분류해를 보면, 資料에 의한 分類, 기능에 의한 분류, 자료전시 장소에 의한 분류, 자료의 수집 범위에 의한 분류, 利用對象者에 의한 분류, 博物館法에 의한 分類로 나누어 볼 수 있다.<sup>7)</sup>

資料에 의한 分類를 보면, 종합박물관, 인문계박물관, 자연계박물관으로 나누어진다. 기

5) 李蘭暎, 상계서, p. 284.

6) 日本의 博物館法(법률제285호, 1950. 12. 1) 第1章 總則 第1條; 이 法律은 社會教育法의 精神에 基礎하여 박물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해서 그것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 이로써 국민의 교육, 학술 및 문화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7) 新井重三, 「博物館의 分類」『博物館學講座』1, 雄山閣出版, 1980, pp. 123-134.

능에 의한 분류를 보면, 全機能形 박물관, 보존기능 중시형 박물관, 教育機能 重視形 博物館, 研究機能 重視形 博物館, 레크리에이션 중시형 박물관으로 나눌 수 있다. 資料의 展示 (보존)場所에 의한 분류를 보면, 관내 전시형 박물관, 옥외 전시 박물관, 현지 보전형 박물관으로 나눌 수 있다. 資料蒐集範

위에 의한 분류를 해보면 역사자료 수집형 박물관(역사지향), 현대자료 수집형 박물관 지역자료, 수집형 박물관(향토지향), 광역자료 수집형 박물관(중앙지향)으로 나눌 수 있다. 利用者에 의한 分類를 해보면, 연령층별로, 직업별로, 취미별로 나눌 수 있다. 管理者에 의한 分類를 하면 국립, 지방자치단체립, 법인체립으로 나눌 수 있으며, 博物館法의 立場에서 分類를 하면 현재는 박미법에 의해 등록을 신청해서 등록된 登錄 博物館과 未登錄 博物館으로 나눌 수 있다. 박미법에 의하면 아무리 훌륭한 大學博物館이라 해도 博美法에서 말하는 博物館은 아니다. 왜냐하면 대학박물관은 등록대상이 아니고 등록 신청을 낼 자격도 없기 때문이다. 때문에 문체부 관할의 일반 박물관과는 달리 大學을 포함하는 學校博物館을 위한 새로운 法을 教育部에서 따로 制定해야 할 것이다. 文體部에서 教育部 관할 하에 있는 大學博物館을 管轄할 수 없기 때문에 學校博物館에 대한 法은 필히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교육부에서는 사회교육법에 분명히 도서관과 박물관은 사회교육시설로 한다고 명시해 놓고 있으면서도 박물관을 도외시하고 있다.<sup>8)</sup>

博物館 系統別로 분류해 보면 미술계 박물관, 역사계 박물관, 자연사계 박물관, 이공학계 박물관, 동식물원·수족관, 종합박물관, 전문 박물관으로 나눌 수 있다. 設置 者別로 박물관을 나누어 보면 국립 박물관, 공립 박물관, 사립 박물관, 대학부속박물관, 학교 박물관으로 나눌 수 있다.

博物館資料라 함은 박물관이 수집·보존·전시하는 인류·역사·고고·민속·예술·동물·식물 광물·과학·기술·산업 등에 관한 자료로서 學問的 藝術的 價値가 있는 것을 일반적으로 말하고 있다.<sup>9)</sup> 박물관에 있어서 第一의 特徵은 어떤 자료가 어느 만큼 있는가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實物資料의 所藏數는 박물관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 박미법에는 자료에 대해서 언급이 없다. 그러나 자료의 기준 수에 대해서는 종합박물관은 각 분야별 100점 이상 전문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수족관 등도 모두 100점 이상을 자격 요건으로 하고 있다.<sup>10)</sup>

8) 사회교육법(법률 제3648호, 1982. 12. 31) 제4장 사회교육시설에 보면 제23조에 보면 ① 도서관 및 박물관은 사회교육시설로 한다. ② 도서관 및 박물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으나, 사회교육법으로 도서관법은 일찌기 제정되었으나, 사회교육법에 기초한 박물관법은 제정된 바 없었다. 다만 문화부에서 박물관법을 1989년 12월에 제정하였으나, 제1조 목적에 보면, "이 법은 박물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박물관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문화·예술 및 학문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여 사회교육법의 정신에 기초하였다는 말이 전혀 없다.

9) 加藤有次, 椎名仙卓, 『博物館ハンドブック』雄山閣, 1990, pp. 44-60.

우리 나라 博物館이 소장하고 있는 資料 數를 최근에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국립 중앙박물관이 119,690점이고, 지방의 경주, 광주, 전주, 청주, 진주, 부여, 대구, 공주 등의 8개 지방 박물관을 보면, 평균 9,198점으로 나타나 있다. 大學博物館은 5,000점 이상의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대학이 34, 4%이며, 평균은 1,021점으로 나타나 있다.<sup>11)</sup>

박물관은 所藏 資料의 特性에 의하여 專門性이 결정되고 또한 그것들이 박물관의 성격을 보여 주게 된다. 박물관의 種別도 一般的으로 박물관 자료의 성격에 따라서 나누어진다. 特定 專門 박물관은 取扱하는 박물관 자료가 設立 理念에 따라서 특정한 자료를 취급하는 박물관 시설이다. 특정 전문 박물관은 그 기능이나 성격상 綜合博物館을 제외하고는 미술계 박물관, 역사계 박물관, 자연사계 박물관으로 나눌 수 있고, 전문성이 높은 부분으로 더욱 세분화될 것이다. 예컨대, 미술계박물관에 있어서 회화, 조각, 書, 도자기, 칠기, 옹기, 사진, 고유작가 작품 등을 주로 소장할 것이다. 歷史系 博物館에서는 고고, 민속, 민족, 건물, 가구, 제지, 제공업, 농업, 방수, 승물, 완구, 시계, 연료, 사진기, 악기, 섬유, 체육, 보물, 개인유물 등이 주로 많이 취급되고 있다. 자연사계 박물관에서는 광물, 화석, 패류, 산호, 곤충, 기생충 등으로 넓은 분야이나, 동·식물원, 수족관 등에서 취급하고 있다. 理工系 博物館으로서는 전기통신, 자동차, 철도, 선박, 전기기기, 안전기술 등의 부문이 있으나, 자료 내용은 이공계라 해도 역사계 박물관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이 많다.

### Ⅲ. 博物館 資料로서 教科書와 教育資料

#### (1) 教科書의 概念

教科書(textbook, Lehrbuch, livre de class, 課本<sup>12)</sup>)는 教育의 主된 內容을 수록한 知識體系이며 教育 수단이다. 교과서는 교육과정에 따라 편찬한 학교교육의 주된 교재로서 가르치는 데 사용되는 학생용 또는 교사용 도서다. 教科書란 원래 원전 학습서, 요항 등을 의미했으나 오늘날에는 주로 학습서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교사는 교과서를 매개체로 삼아 학생을 지도하며, 학습재료로 삼게 된다. 그러므로 학생과 교사가 사용하는 모든 印刷物을 教科書라 할 수 없다. 교육과정에서 선정하고 배열한 내용에 따라 지식·경험의 체계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학생들의 발달 단계나 학습의 소지 또는 바탕을 기반으로 학생들이 학습의 기본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한 교재로서의 성격을 갖추어야 한다. 교과서는 국가

10)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시행령(대통령령 제1365호, 1992. 5. 30) 제5조 등록 요건 별표 참조.

11) 鄭鎮鳳, 「대학박물관의 현황과 전망」, 『古文化』46, 한국대학박물관협회, 1995, pp 6-14 참조.

12) 다같은 한자 문화권이지만 中國·대만은 教科書를 '課本'이라고 하고 한국 일본은 '教科'書라고 부른다. 우리 나라의 教科書라는 용어는 일본에서 온 것으로 보인다.

사회의 바람직한 統一的 見解를 밝혀주는 교육도구다. 교과서는 말하기, 읽기, 쓰기, 듣기 등의 基礎能力을 배양하기 위한 도구이다. 그래서 교과서는 역사적이고 정통적인 내용과 권위 있는 내용이 담겨있다는 신뢰성이 부여되어 있다. 교과서는 권위와 표준성을 최고의 方法體系로 삼음으로 관습적 教育媒體로 인정되어 왔다. 우리 나라의 교과서는 종전에 국정 교과서·검인정 교과서로 구분해 왔는데 현재는 一種圖書와 二種圖書로 구분하여 編纂되고 있다.<sup>13)</sup>

西洋에서 印刷術이 보급된 다음 가장 일찍이 著述된 教科書는 보헤미아인 코메니우스(Comenius A. J., 1652 - 1690)의 『世界圖繪』(The World in Pictures)에 의해 이룩되었다. 이것은 “森羅萬象에 있는 모든 근본적인 사물과 눈에 보이는 인생의 모든 근본적인 활동에 대한 어휘목록”<sup>14)</sup>이며, 코메니우스는 사물의 모양새를 그림으로 옮기고 거기서 문자로 설명을 붙임으로써 知識內容을 標準化하는데 공헌하였다. 그의 세계도회는 여기서 비로소 교과서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학습하기 위한 책”으로 그 사용 성격이 구체화되었다. 교과서는 당대의 경험과 가치체계, 문화와 전통, 통합된 견해와 일과 삶의 실상을 반영하여 왔다.

교과서는 標準媒體로서 보는 견해와 制度媒體로서 보는 두 견해가 있다.<sup>15)</sup> 교과서를 표준매체로 보는 견해에서는 교과서는 표준 되는 지식 내용으로 꾸며진 교육의 근거자료이며 보편성의 원리에 기준을 두어 지식을 습득하도록 유도하는데 있으며, 또한 對國民 教化手段으로서 국가와 사회의 정치적 목적과도 직결되어 있어, 조작 또는 임의적 표준체계가 제시될 가능성이 있는 부정적인 요소도 있다. 그러나 긍정적인 관점은 文化的 通路로서의 信賴性 賦與에 있다. 교과서는 가치지향을 안내하는 통로로서 종이로 된 출판매체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교과서는 학교가 文化內容을 전달하는 문화적 통로 구실을 맡고 있는 교수-학습의 매체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절대적이며 전폭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교과서는 모든 학생이 꼭 배워야 할 표준적인 내용이 印刷된 것이다. 교과서는 견고하게 製本해서 여간해서는 마모되지 않는 것이다. 교과서는 학생들이 배우는데 필요한 唯一無二한 자료이다. 따라서 標準媒體로서 볼 때 교과서는 國民教育의 經典이라고 말할 수 있다.

制度媒體로서의 교과서가 지닌 제특성을 보면 먼저 學校教育에서 教育課程을 구현하는 중요 수단이라는 점에서 그 기본 이념을 가진다. 學校教育은 전통적으로 교과서에 의해 전개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기서 學校란 국가 사회적 장치로 마련된 制度 教育의 場을 의미한다.

국가라는 커다란 공법사회를 운용하려면 이에 요청되는 국민 형성을 위한 교육 이념과 지

13) 서울大學校師範大學教育研究所編, 『教育學用語辭典』, 培英社, 1989, p. 64.

14) William Boyd, Edmund J. King, The History of Western Education, Adam & Charles Black, 1975, p. 245.

15) 李鍾國, 『한국의 교과서』,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1, pp. 7-13 참조.

적 문화적, 도덕적 바탕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국가적 목적을 구현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이 學校이며, 학교는 곧 국가의 제도화된 교육기관으로서 國家의 統制的 機能을 遂行하기 마련이다. 우리 나라의 교육법에 의하면 “教科書는 교육부가 著作權을 가졌거나 檢定 또는 認定한 것에 한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법의 教科用 圖書에 관한 規程을 보면 “교과용 도서라 함은 교과서, 지도서, 인정도서를 말하고, 교과서라 함은 학교에서 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교재를 말하며, 교육부가 저작권을 가진 도서와 교육부장관의 검정을 받은 도서로 구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교과서는 제도매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표준매체로서의 교과서 관은 광의의 개념을 보여주고 제도매체로서의 교과서 관은 협의의 교과서 관을 보여주고 있다.

## (2) 歷代 教科書의 變遷

우리 나라는 이미 고조선 때 교육 직제로서 博士란 명칭이 있었다. 三國志 魏志東夷傳에 準王이 망명한 衛滿에게 博士의 職을 주었다고 기록하고 있어 교육기관도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역사 기록에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우리 나라의 역사상 최초의 교육기관은 高句麗의 太學과 경당이다. 태학은 국립 교육기관이고 경당은 사립 교육 기관이었다. 太學은 소수림왕 2년(372) 6월에 설립된 학교로서 여기서 가르친 과목은 시경, 서경, 역경, 예기, 춘추 등의 오경과 사기, 한서, 후한서(또는 도관기) 등의 삼사를 가르쳤다. 경당은 오경과 삼사 외에 삼국지, 진 춘추, 옥편, 자통, 자림, 문선 등을 가르쳤다. 百濟는 오경박사제도를 두었으며, 일본에 王仁 박사가 論語와 千字文을 전해 가르쳐 주었다는 것을 보아 오경과 논어 천자문 등을 주요 교과목으로 가르쳤을 것이다. 新羅는 삼국 통일 후 신문왕 2년(682) 6월에 설치한 國學에서 儒學部와 雜部學(기술계 학부)로 나누어 가르쳤다. 유학과는 論語, 孝經, 주역, 상서, 모시, 예기, 춘추좌전, 文選 등을 가르쳤다. 또 실과에서는 算學, 서학, 의학, 천문학, 율학 등을 교육하였다. 통일신라 때에는 국학을 太學監이라 개칭하고 3과로 나누어 박사와 조교를 두고 논어, 효경, 예기, 주역, 좌전, 모시, 상서, 문선을 교수하였다.<sup>16)</sup>

高麗時代는 성종 11년(992)에 國子監을 설치하였다. 이것이 나중에 成均館이 되었으며, 조선시대까지 이어졌다. 여기서 가르친 교과목은 역시 유학의 경전인 논어, 효경, 주역, 상서, 주례, 예기, 모시, 춘추좌전, 곡량전과 기술과목으로는 律學, 書學, 算學 등을 가르쳤다. 이밖에도 說文, 字林, 3倉, 爾雅 등을 가르쳤다. 고려에는 서민 교육기관으로 12도, 학당, 향교, 서당 등이 있었으며, 12徒에서 가르친 主要科目은 9經(주역, 시경, 서경, 춘추, 효경, 논어, 맹자, 주례), 3史(사기, 한서, 후한서)였다.

朝鮮時代의 학제는 대개 고려시대의 것을 그대로 계승하였다. 成均館에서는 대학, 중용, 논어, 효경, 맹자, 通鑑綱目, 宋元節要, 歷代兵要, 시전, 서전, 춘추, 주역, 예기 등을 가르

16) 李基白, 『韓國史新論』, 일조각, 1977, p. 103.

쳤다. 四學· 향교· 서원· 書堂에서는 천자문, 소학, 四書, 五經, 近思錄, 三綱行實圖, 五倫行實圖, 通鑑節要, 十八史略, 史記, 唐宋文, 唐律을 가르쳤다

朝鮮 중기에 이르면, 우리 나라에서도『童蒙先習』, 『禪家龜鑑』, 『兒學篇』, 『擊蒙要決』, 『學校模範』과 같은 歷史的 教科書가 출현하였다. 외국어 교과서로도 『박사통언해』, 『노걸대언해』와 유교의 주요경전과 農書, 醫書 등의 한글로 解釋한 諺解本이 나왔다. 『童蒙先習』은 1543년 목판본이 발견되어 閔濟仁의 저술로 밝혀졌다. 中國의 著述이 아닌 우리 나라 사람이 著述한 독자적 교과서로서 서양의 선교사들도 훌륭한 교과서로 찬사를 아끼지 않았으며, 코메니우스의 『世界圖繪』보다 몇 백년 앞서는 것으로서 서당뿐만 아니라 宮中에서도 利用되었던 것이다. 정약용의 『兒學篇』은 주홍사의 천자문을 비판하여 2천자문으로 한 것이며, 有形千字文과 無形千字文으로 나누어 자연과 인문을 4자시로 설명하고 있다. 權近의 『入學圖說』은 코메니우스의 『세계도회』보다 수백년 앞선 것으로 儒敎의 宗旨를 40종의 圖表로 간략하게 설명한 일람표이자 설명도, 분류 표로서 科學的 敎授法의 모체가 되었다. 李珣의 『학교모범』은 아동敎育의 方向을 16개 項目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禪家龜鑑』은 서산대사가 찬술한 불교의 교과서로서 명나라의 道家龜鑑에다 부록으로 佛家와 道家의 文句들을 넣은 敎材다.

開化期는 1870년대부터 1910년까지로 잡는다. 1876년 2월에 일본과 강화도에서 병자수호조약이 체결되었다. 이러한 외세와의 대응 속에서 利用厚生 實事求是의 實學思想이 接木되었으며, 民族主義的 思想과 人權과 國權思想에 바탕한 開化思想으로 形成되어 강한 힘으로 뻗어 나갔다. 1883년 元山學舍에서 시작되어 1908년(융희2년)까지 전국적으로 5,000여개의 각급 관공립학교와 사립학교가 설립되었으며, 1883년에 설립된 元山學舍는 우리 나라 最初의 近代學校이다.<sup>17)</sup> 그리고 원산학사에서 1885년에 발간하여 교과서로 채택 사용한 『農政新編』 4책과 『萬國公法』이 있으며, 특히 『農政新編』은 서양근대농법을 최초로 소개한 책으로 한국 농업 기술사상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最初의 近代的 教科書다.

黃玄의 『梅泉野錄』에 의하면 1910년까지 특히 민중들이 세운 각종 私立學校는 3,000여 개된다고 했다.<sup>18)</sup> 1895년 신식敎育령이 공포되었지만 教科書를 편찬할 만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일본으로부터 敎育行政 專門家를 招聘하여 敎育제도를 개혁하는 일에 참여케 하였다. 學部 初期의 국어과 교과서인 『新訂小學』 序文에 高見龜와 麻川松次郎과 더불어 편집 출판한다는 내용이 명기되어 있다.<sup>19)</sup>

『國民小學讀本』, 『算術書』(교사용) 4책을 편찬했다. 사립학교에서는 대부분의 교과서를 일본 책을 翻案 또는 翻譯하여 사용했다. 『新編倫理學敎科書』, 『中等修身敎科書』, 『初等物理敎科書』, 『中學化學敎科書』등 教科書라는 일본식 用語도 처음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初等小

17) 愼鏞廈, 「우리 나라 最初의 近代學校 設立에 대하여」, 『韓國史研究』10, 한국사연구회, 1974 참조.

18) 孫仁銖, 『韓國近代敎育史』, 연세대학교출판부, 1975, p. 36.

19) 鄭在哲, 『日帝의 對韓國殖民地敎育政策史』, 일지사, 1985, p. 208.



學』 권5의 제1과 大韓帝國을 보면 地圖에 東海나 西海에 대한 표기가 전혀 되어 있지 않고 다만 日本界만 표시하고 있는데 반해 鄭仁虎의 『最新初等大韓地誌』 總論 제일편 位置와 境界를 보면 東海를 朝鮮海로, 西海를 黃海라고 분명히 명기하고 동해가 우리의 領海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 學部 編纂 教科書와는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 밖에도 『國民小學讀本』, 『尋常小學』 3책 등 여러 가지 교과서가 출판되었다. 『심상소학』에서는 國漢文으로 표기되었을 뿐만 아니라 삽화가 있는 종래의 전통에서 완전히 탈피해서 서양식으로 遠近法이 뚜렷하고 人物이 완전히 한국사람으로 그려졌다. 1807년 이봉운의 『國文正理』, 1908년과 1909년 사이의 周時經의 『朝鮮語文法』, 崔光玉의 『大韓文典』, 兪吉濬의 『大韓文典』, 玄采의 『幼年必讀』, 『幼年必讀釋』 등 1910년까지 1,000여종의 교과서를 출판하였다. 한국인 학자가 쓴 것으로는 張志淵이가 丁若鏞의 『我邦疆域考』를 증보한 『大韓疆域考』, 우리 나라의 주요 역사서를 참고하여 만든 김택영의 『歷史輯略』과 『東國歷史略』(1895) 『朝鮮略史』 10과 등이 있다.

식민지시대 일제에 의해서 간행된 교과서는 民族抹殺政策을 추진하는 중요한 수단의 하나였던 것이다. 이미 統監府時代부터 시작되어 國權強奪을 계기로 本格化된 교과서 統制政策은 오직 그들의 식민지 건설에 요청되는 ‘멸사 봉공의 정신’을 지닌 ‘忠良한 半島 학생’으로 교육하여 조선인으로서의 주체성이 말살된 皇國臣民의 養成에 목적을 두고 있었다. 결국 일제는 조선 사람들이 자신의 일·역사·전통을 알지 못하게 하여 民族魂을 상실케 하고, 조상의 무력함과 악행을 들추어내어 조선인 후손들에게 가르침으로써 실망과 허무감에 빠진 愚昧한 朝鮮人으로서의 조립을 토대로 황국신민을 양성하려는 것이었다.

일본은 1910년 11월부터 일본 憲兵, 경찰, 조선인 보조원 등을 動員하여 鐘路一帶의 書店과 전국 각지의 서사, 향교, 서원, 구가, 양반 세가 등을 급습 장지연의 『大韓 新地誌』, 이채우의 『愛國精神』, 申采浩의 『乙支文德』, 현채의 『美國獨立史』 등 무려 20萬 卷을 索出하여 불태우는 大 焚書 事件이 있었다.<sup>20)</sup> 일제는 韓國人 著作의 모든 教科用 圖書를 몰수하였으며, 또한 책명이 국권을 상징하는 大韓이라 표기한 모든 도서는 금서 조치되었다.

조선 총독부는 1911년부터 正式으로 印刷局에서 교과서를 발행하기 시작했다. 1883년 漢城旬報를 발간하기 위하여 新 鉛活字를 日本에서 수입했기 때문에 印刷 技術도 일본인들의 지도를 받게 되었다. 국정교과서는 거의 조선총독부 인쇄국에서 발행하였는데, 歷史는 일본사를 주로 했고 국어는 일본어인데 한글이 들어 있는 교과서는 朝鮮語讀本이라 했다. 해마다 새 학기만 되면 조선총독부는 어김없이 각급 학교에서 필요한 교과서를 발행했다. 당시 일본 관리들은 한국인을 철저한 일본인으로 만들기 위한 정책으로 교과서를 발행했던 것이다. 일본국내에서 사용하는 교과서와 우리 나라에서 사용하는 教科書는 內容이 달라 문제가 생기기도 했다.

1945년 8월 15일 광복 후부터 1948년 8월 15일 까지 3년 동안 미군정청 통치가 있었다.

20) 文定昌, 『軍國日本朝鮮占領三十六年史』, 백문당, 1965, p. 80.

이때의 교과서는 국어는 한글학회, 역사는 진단학회, 영어는 영어교사회에서 미군정청 교과서를 발행하였다. 『초등 셈본』, 『초등 공민』, 『民主主義 教育法』, 『한글 첫걸음』, 『국어교본』, 『국사』 등이 간행 사용되었다. 1947년 9월 윤태영의 『새중등작문교본』이 발행되었으며, 12월에는 장하일의 『중등새말본』이 발행되었으나, 문교부의 검정을 받은 것은 아니다. 최현배의 『중등 조선어 말본』의 教授 參考書가 1945년 12월에 발행되었다.

1948년 政府 樹立 후에야 비로소 우리 나라의 獨自의인 教科書를 편찬 발행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 정부의 문교부에서 『우리말 도로찾기』(1949), 『우리집 우리학교』(1950), 『셈본』(1952), 『국어』(1953), 『고장생활』(1953), 『여러 곳의 생활』(1953) 등의 교과서가 간행되었다. 그러나 당시 우리 나라는 1950-1953년 사이에 일어난 6,25전쟁으로 국내의 製紙技術이 저급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데다가 基幹産業이 파괴되고 軍納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用紙가 모자라 순 벗짚을 원재료로 하여 만든 馬糞紙로 교과서를 제작하였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당시 문교부 장관이었던 白樂濬박사의 노력으로 유네스코 지원금 10만 달러와 샌프란시스코 시민들이 기증한 1천 톤의 갱지로 국어, 셈본, 과학공부, 다른 나라의 생활, 여러 곳의 생활 등 戰時教科書 12책을 간행하였으며, 1952년 新學期부터는 자유아시아협회와 운크라(U. N. K. R. A)에서 우리 정부에 無償으로 지원한 갱지로 교과서를 편찬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이 시기에 編纂된 教科書는 책의 크기가 작아졌을 뿐만 아니라 지질도 좋지 못하여 粗雜하고 초라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教授要目이 제시되고 單元制가 導入되었으며, 民族意識의 確認을 위하여 國語·國史學習이 중요시되었고, 교과서 교육을 통한 自生力·自衛力 개발을 위해 實業系 교과서의 다양한 系列化가 추진되었던 시기이기도 하였다.

우리 나라 자체의 本格的인 교과서의 편찬은 제1차 教育課程期((1955-1963)인 1955년부터 었다. 이 때 비로소 정돈된 교수요목에 맞추어 전문학자들이 저술하고 수많은 출판사에서 심혈을 기울여 만든 교과서를 문교부에서 엄격하게 심사하여 허가해 주었기 때문이다. 그 후 제2차 教育課程期(1963-1973), 제3차 教育課程期(1973-1981), 제4차 教育課程期(1981-1986) 제5차 教育課程期(1986-1992), 제6차 教育課程期(1992- )에 이르기까지 40여년 동안에 많은 出版社에 의해서 심혈을 기울여 만든 교과서가 발행되었다. 이처럼 6차례에 걸쳐 教育課程이 개정되면서 1차는 교과교육 중심, 2차는 생활 및 경험 중심, 3차는 학문과 민족 주체의식 배양 중심으로 편찬되었으며, 특히 국정교과서 (1종도서)의 편찬 발간은 교과서 발달사상 큰 변화를 보여 주었다. 4차는 고도 산업 사회에의 적응과 통일 지향 등 미래사회에의 對應力 개발 중심, 5차는 건강인·자주인·창조인·도덕인으로서의 가치관 배양 중심, 6차는 국제화·정보화에 대비하는 능력 육성에 중심을 둔 교육내용으로 이루어져 왔다.<sup>21)</sup>

특히 1979년도에는 연구 개발형 교과서가 발행되었고, 제5차 국민학교 교과서는 1교과에

21) 한면회의, 『국민학교교육과정해설』 제6차교육과정, 교육과학사, 1993. pp. 19-22.

多教科書 체제가 도입되어 학생들이 교과서에 직접 그림을 그리고 쓰는 응용 체재 방식을 도입했던 사실은 주목되는 점이다. 교과서의 편찬 조직도 5단계에서 14단계로 확대·발전되었고, 교과용 도서의 개발 및 발행에 관한 규정인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 의해 1종 도서·2종 도서·인정도서로 대별되고 있다. 그리고 이때부터 教材의 地域化가 이루어져 대구, 경북 등의 각 시도별 사회 교과서가 발간되었다.

앞으로 교수-학습영역도 점차 확대·분화되면서 다종 다양한 교과목의 편성이 요구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교과서의 種數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1970년 306책이었던 총 발행 책수가 1992년에 905책으로 확대되었던 점에서 잘 드러난다.

이처럼 책수의 多種化라는 외형적 범위뿐만 아니라 판형의 대형화와 원색인쇄의 증대도 중요한 특징으로 들 수 있다. 교수요목 시기에 교과서의 판형은 4·6판 정도의 소형판이 통용되었다. 70년대 중반부터 고등학교 일부 실업계 전문 교과서의 4·6배판 제작 등 교과서 판형 체제도 발전하여 1980년대 초반 『바른 생활』·『슬기로운 생활』·『즐거운 생활』 등 국민학교용 일부 교과서가 국판에서 4·6배판으로 변경되어 제작·보급되었던 점은 주목할 만한 발전이라고 하겠다. 중학교용 『국사』의 경우는 1990학년도 사용 본부터 종래의 국판에서 크라운 판으로, 고등학교용 『국사』는 1991학년도 사용 본부터 크라운 판으로 확대되었으며, 고등학교용 물리·화학·생물·지구과학 등도 크라운 판으로 바뀌었던 것이다.

이 시기에 판형의 대형화와 함께 교과서에 원색인쇄가 도입된 것 또한 큰 변혁이었다. 3차 교육과정 후반기인 1979학년도부터 편찬된 모든 교과서에 6쪽 이내의 원색회보를 실어야 한다는 편찬 방침에 따른 결과였다. 또 교과서를 구성하는 재료 선택도 화보 인쇄용으로 아트지(100mg/m<sup>2</sup>)를 사용하였으며, 특히 국민학교 교과서의 원색화 실현은 전방적인 외형 체재뿐만 아니라 내용 면에서 질적 수준이 높아진 뚜렷한 증거라고 하겠다. 더구나 製冊 방식에 無線방식을 도입함으로써 교과서 생산의 경제성을 높일 수 있었으며, 규격도서로서의 외형 갖추에 정확성을 기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발전되었던 것이다. 이처럼 3차 교육과정 이후 교과서는 내용 면이나 외형에서 획기적으로 발전하였음을 알 수 있고 현재는 6차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가 편찬이 진행되고 있는 편이다.

教育部에 따르면 1986년 현재 광복 이후 발행된 각급 학교 교과서는 모두 4만 여종으로 목록이 파악된 것은 2만 8천 여종이고, 보관 중인 것은 2만 4천 여종에 불과하다. 초등학교 국어의 경우 1947, 1949, 1950, 1951년에 발행된 교과서는 거의 찾아 볼 수 없는 실정이라고 한다. 개화기에서 1945년 무렵의 교과서들은 그 보존 정도가 더욱 떨어져 일부 장서자들 간에 전매품으로 유통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우리 나라는 현재도 매년 1억부가 넘는 교과서가 출판되고 있다. 1995년도 教育統計年報에 따르면 우리 나라 초·중·고교의 교과서 발행 총 부수는 168,393,000부에 이르고 있어, 우리 나라 여타 도서와 비교할 때 실로 엄청난 부수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실정에 비추어 볼 때 우리 나라 역대 교과서와 새로 나오는 교과서의 수집과 보존

작업은 시급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려면 우선 국가적 차원에서 한국교육개발원의 교과서센터를 확대 개편하여 중앙에는 독립된 국립 교과서 연구소를 설치하고 교과서 전문 도서관과 함께 교육박물관 또는 교과서 박물관도 설치하면 좋을 것이다. 그리고 지방에는 전국의 교육대학교 도서관과 박물관은 교과서와 교육관련 자료를 수집·보존·전시·교육·연구하도록 해야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대학교 박물관을 도서관과 같이 법제화해서 행·재정적으로 국가에서 지원해 주어야 할 것이다.<sup>22)</sup>

### (3) 教育關係 資料

우리 나라 教育의 발자취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教育關係 자료는 대단히 많다. 傳統 教育 기관인 서당, 서원, 향교, 성균관에 관계되는 자료는 교과서 이외에도 각종 教育기관의 教育 시설에 관한 자료, 教育 제도에 관한 자료, 교구에 관한 자료, 향사와 석전제에 관한 자료, 과거에 관한 자료, 특히 문방 四友( 종이, 먹, 붓, 베풀 ) , 낙관, 연적, 먹통, 인주, 서안, 필통, 筆囊, 책함, 책장, 교지, 교지통, 어사화, 홍패 백패, 경서통, 서산, 붓판, 목판, 목활자, 袖珍本, 고지도, 과거 붓짐, 試券, 教育풍속도, 주판, 천문도, 해시계, 나침반, 度量衡 용구, 전통 악기 등은 모두 전통 教育 자료로 가치가 있는 것이다.

개화기 시대의 주요 教育관계 자료를 보면, 역시 教育 제도에 관한 자료, 학교 시설에 관한 자료, 교구에 관한 자료, 의상에 관한 자료, 新鉛活字, 졸업증서, 성적표, 앨범, 상장, 실험 실습 도구, 西洋樂器, 필기 도구 등이 있을 것이다.

日帝 時代 教育 자료는 역시 教育 제도에 관한 것, 教育 시설에 관한 것, 學校設立에 관한 문서, 教育 자료에 관한 것, 등사 용구, 필기 도구, 연필 깎기 칼, 도시락, 축음기, 재봉틀, 졸업장, 상장 성적표, 일본 民族 抹殺 教育政策에 관한 것, 예컨대, 황국신민 서사, 창씨 개명에 관한 것, 내선 일체에 관한 教育 자료, 學徒兵에 관한 자료, 교복 등 의상에 관한 것, 학생 의거에 관한 것 등이 있을 것이다.

美軍政 時代와 현대 教育에 대한 자료로는 教育제도에 관한 것, 教育 시설에 관한 것, 교구에 관한 것, 교복 등 의상에 관한 것, 필기 도구, 앨범, 成績表, 졸업장, 주판, 미터제에 의한 도량형 용구 즉 줄자, 삼각자, 대나무 자, 교편, 지구의, 우리 나라 지도, 世界 地圖, 각종 掛圖, 교지, 참고서, 필경도구, 학보, 실험 실습 기자재, 방송기재, 악기, 각종 운동 용구, 컴퓨터, 라디오, 확성기, 학교 종, 탁자 종, 국기, 국기 함, 國民教育憲章 함, 교탁, 새마을기, 지남침, 현미경, 시계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자료들은 박물관 자료로서 우리 나라 教育의 발전 과정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22) 안동교대를 비롯한 일부 일반종합대학교로 개편된 옛날의 教育대학들은 일반대학으로 전환됨으로 해서 박물관도 법제화되고 행·재정적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으나, 일반대학으로 개편되지 않은 나머지 11개 教育대학들은 박물관을 개관한지 20년이 넘어도 법제화가 되지 않고 있다.

자료일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 榮辱의 산 歷史 자료가 되기 때문에 귀중한 박물관 자료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 Ⅳ. 教育專門博物館과 教科書와 教育資料

教育은 個人的 發展, 국가사회와 人類文化的 發展과 새 歷史 創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래서 인간 사회가 존재하는 곳에서는 항상 교육이 이루어졌다. 이미 앞에서 살펴 본바와 같이 우리 나라는 유구한 역사와 빛나는 문화를 가졌으며, 고조선 이래 현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교육제도가 있었다. 이러한 교육을 위한 수단으로서 교과서와 교육자료가 불가치피하게 개발되어 사용되어 왔던 것이다. 이러한 것들은 바로 우리 나라의 귀중한 文化 遺産이며 보배로서 당대의 精神文化·物質文化·行動文化 등 모든 문화와 생활의 변천과 발전상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다. 이렇게 중요한 교과서와 교육관련 자료를 專門的으로 取扱하는 教育博物館이 근자에까지 없었다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교육열을 자랑하면서도 막상 그 문화창달의 원동력이 된 교육의 발자취를 뒤돌아 볼 수 있는 物的 資料의 蒐集과 保存 그리고 展示와 教育에 소홀히 하였던 것이다. 이것은 아마 조국근대화, 산업화, 경제 발전에 치중하다 보니 잠시 그 중요성이 망각되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러나 다행하게도 일부의 개인이나 기관에서 교과서와 교육관련 자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수집·보존·연구에 많은 노력을 경주하여 이 분야에 대한 일반인들의 認識 變化에 큰 힘이 되고 있다. 그리고 教科書史에 대한 연구도 1970년대에 와서 본격적으로 나타났다. 교과서사 연구에 주요 論著를 보면, 1973년에 尹八重의 「教科書와 그 變遷過程」<sup>23)</sup>, 姜允浩의 『開化期の 教科用 圖書』<sup>24)</sup>, 1974년에 釜山師大 국어과의 「개화기 교과용도서 전시목록」, 中央大 師大의 「개화기 교과용도서 전시목록」, 柳鐸一의 「開化期 教科用圖書 總錄」이 있었다. 1980년대에 들어오면, 1982년에 洪雄善 「한국 교과서 發達過程의 概觀」<sup>25)</sup>, 李鍾國의 『韓國의 近代 教科用圖書의 成立過程에 대한 研究』가 있었고, 1983년에 대한교과서주식회사의 『大韓教科書史(1948 - 1983)』가 간행되었다. 1990년대에 들어오면 1991년에 삼성출판박물관에서 『교과서특별기획전』<sup>26)</sup>이 열렸고, 李鍾國의 『한국의 교과서』가 출간되었으며, 1992년에 대전 한밭교육박물관이 개관되었다. 이 과정을 살 때 1970년대는 주로 개화기 교과서에 관심을 집중해 오다가 1980년대에 오면, 개화기에서 현대에 이르는 모든 교과서에 관심을 보여주었다. 그러다가 1990년대에 들어 와서 비로소 교육전문박물관

23) 尹八重, 「教科書와 그 變遷過程」, 『새교육』227, 228, 229, 대한교육연합회, 1973-1974.

24) 康允浩, 『開化期の 教科用圖書』, 教育出版社, 1973.

25) 洪雄善, 「한국 교과서 發達過程의 概觀」 『韓國의 教科書 變遷史』, 한국교육개발원, 1982.

26) 安春根, 「教科書에 대하여 -국민교육의 경전이다」 『教科書 特別企劃展』(제1집), 三省出版博物館, 1991.

관이 탄생하게 되었다. 이 대전 한밭教育博物館은 우리 나라 博物館史에 하나의 쾌거로 기록 될 것이다. 이 박물관에서는 조선시대를 비롯한 개화기 이전에서 현대에 이르는 시대별로 교과서를 전시하고 있으며, 교과서가 도서관 자료만이 아니라 박물관자료로서 본격적으로 상시 전시되고 있다. 나아가서 교과서 뿐만아니라 교육관련 자료까지도 博物館 資料로서 그 價値를 인식하고 교육에 관한 모든 자료를 전시하고 있다. 敎典的 傳統 敎科書라 할 수 있는 四書五經에서 현대 교과서에 이르기까지의 각종 교과서와 교육에 관한 자료를 현재 실물과 함께 모형·디오라마·복제·판넬자료를 실내와 야외에 3,000점이나 전시하고 있으며, 17,000점이 넘는 교육 관련 자료를 교체전시 기획 전시를 통하여 순환 전시를 하고 있다. 이 박물관은 대전시교육감의 선구적 노력과 일선 교육계의 협력으로 이루어진, 그야말로 전국 초유의 교육 전문박물관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는 자못 크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나라의 專門 博物館들을 보면 고고, 미술, 현대미술, 고고유물, 종교미술, 농업, 출판, 인쇄, 스포츠, 의상, 축음기, 오디오, 김치, 철도, 산림, 가구, 잡지, 자수, 디자인, 우정, 체신, 궁중, 해양, 죽공예, 스키, 불교, 나주배, 옹기, 화폐, 무속 등의 박물관이 있다.<sup>27)</sup>

大學博物館은 일부 대학을 제외하면 대부분 綜合 博物館이다. 그리고 教育大學校의 博物館들도 대개가 고고, 역사, 민속자료를 중심으로 하는 박물관들이다. 우선 대학박물관 협회에 가입된 교육대학 박물관을 보면, 光州教育大(1987년 개관)가 土陶類 336, 금속류 227, 옥석류 25, 서화류, 63, 목죽류, 231등 931점을 소장하고 있으며, 淸州教大(1981년 개관)가 석기류, 도자기류, 민속품, 고문서, 서화, 탁본 등 446점, 公州教大(1975년 개관)가 역사, 고고미술, 공예 및 민속에 관한 자료 등 799점, 全州教大(1974년 개관)가 토도류 267, 금속류 229, 옥석류 118, 목죽류 165등 1,044점이다. 大邱教大(1975년 개관)가 토도류 1,100, 금속류 320, 교과서 1,250, 교육 관련 자료 2,000 등 5,235점을 소장하고 있다.<sup>28)</sup> 大邱教大가 本格的으로 교과서와 교육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에 들어와서부터다. 그 전까지는 考古遺物, 民俗資料, 農工具資料를 수집하다가 教育大學의 教育目的에 가장 附屬하는 것은 역시 전통 교과서를 비롯한 교육관계자료라는 점을 인식을 하고 꾸준히 수집해 오다가 금년들어 개인 소장 자료부터 3,000여 점을 입수하고 총장을 비롯한 여러 교수들이 平素 모은 貴重한 資料들을 寄贈함으로써 教育專門博物館으로서 位相을 확립해가고 있다.

教育專門博物館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 목적 달성과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는데 필요한 가치 있는 자료를 풍부하게 수집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사실은 타 부문의 전문 박물관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을 것이다 또한 教育專門博物館은 百貨店과 같은 綜合博物館과는 달리 專門店같이 우리 나라의 教育史을 되돌아 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교육박물관은 1,000만 명이 넘는 전국의 學生들과 教育界에 종사하는 40만이 넘는 敎員들과 전문학자와 연구자, 취미가 그리고 교육의 체험을 한 많은 국민들로부터 환영을 받

27) 『한국의 박물관 및 미술관』, 문화체육부, 1994 참조.

28) 상계서, pp. 143-152 참조.

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교육박물관의 이용자 층은 대단히 두터울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社會的 時代的 必要性을 감안할 때, 積極的으로 教育의 問題를 提起하고 教育에 관한 專門知識을 보급하는 教育연구센터가 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다른 보통 박물관시설에서 수집할 수 없는 우수하고 教育的으로 가치가 높은 資料를 풍부하게 수집해서 이용자를 맞이하는 체제를 갖추어 전문 博物館으로서의 시설과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특히 教科書와 教育資料의 수집은 都市化, 産業化되면서 급속하게 亡失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늦기 전에 教育遺産을 수집 保存하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 新教育을 처음 받은 세대들이 조금이라도 많이 살아 있을 때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政府에서 적극적으로 支援해 주어야 할 것이며, 특히 教育大學校 博物館을 法制化하여 教育 專門博物館으로 育成해야 할 것이다. 교과서와 교육자료는 개인이 가지고 있으면 큰 價値가 없을지 모르나 그것이 한데 모이면 귀중한 자료가 되는 것이다. 교과서나 교육자료는 정년 퇴임하는 大學 教授들이나 校長·校監선생과 일선 학교의 教師들의 협조를 통해서 얼마든지 수집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폐교되는 학교의 자료와 시설을 교육박물관에 활용하면 좋을 것이다. 실제로 대전 한밭교육박물관은 대전의 한 초등학교를 활용하고 일선 교사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로 불과 3년만에 처음의 몇 백점에서 지금은 전국적인 박물관 수준으로 발전하였던 것이다. 옛 세대들이 아직 살아 있을 때 教育遺産인 教科書와 教育關係 資料를 蒐集·보존·연구·教育하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教育은 文字媒體를 통한 교육과 物質媒體를 통한 교육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과거는 문자 매체를 통한 教育이 중심으로 생각되었다. 學問과 教育이라고 하면 곧 書籍을 聯想하는 풍이 있었다. 그리고 학교 내에서 實物教育의 重要性을 認識하지 못한 경향도 있었다. 學校 教育에서나 社會教育에서 物質文化를 매체로 하는 教育활동은 매우 중요하다. 그 중에서도 祖上들이 물려 준 값진 教育遺産은 박물관 자료로서 조사·연구·대상이 되며, 感賞의 機會를 마련해 주는 대상이 되기도 한다. 教育관련 박물관 자료에 대한 수집 보존 展示 業務와 교육자료에 대한 전문적 학술적인 조사·연구·업무의 시행을 本格化시킬 필요가 있다. 이리하여 韓國 教育史의 變遷과 發展過程을 생생하게 한눈으로 볼 수 있도록 時代別, 教育課程別, 種類別로 展示하여 學校教育과 나아가서는 社會教育에 이바지 해야 할 것이다.

특히 教科書는 성격상 圖書館 資料이지만 훌륭한 博物館 資料이기도 하다. 도서관에서는 책은 어디까지나 閱覽資料이지 展示資料는 아니다. 물론 도서관에서도 圖書展示會를 가지기도 하지만 상설 전시는 할 수가 없다. 또한 값진 옛날 희귀본을 쉽게 대출할 수도 없다. 논어나 효경 또는 천자문은 요즘 인쇄로 된 좋은 책이 많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옛날 祖上의 손때가 묻은 木版本이나, 古印刷本을 대할 때 같은 천자문이라도 느끼는 感賞이 틀리는 것이다. 教育史料로서 가치는 더욱 틀리는 것이다. 그리고 教育的 價値는 더욱 말할 나위도 없다.

博物館은 體驗的, 直觀的 教育的 場이다. 또한 生涯教育의 場이기도 하다. 특히 教師 教育

을 담당하는 교육 대학이나 사범대학과 교원 대학에서 교과서나 교육관련 실물 자료를 통해서 체험적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實物 教育은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에게 깊은 感銘과 印象을 심어 주고 올바른 歷史意識을 培養해 줄 것이다.

교과서와 교육자료는 教育史料로서 歷史的 資料다. 歷史資料는 본래 특정의 史觀과 問題意識에 의해서 그 價値와 意義가 認定되는 것이다. 다시말 하면 어디까지나 우리 나라 教育史의 內容과 意義를 表明하고 정착시키는데 유효한 자료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다. 같은 논어라도 중국의 논어와 우리 조상이 직접 우리 나라 종이로 우리의 목판에다 우리의 技術로 판각한 것은 가치가 틀리는 것이다. 또한 우리 손으로 만든 논어 중에도 우리 말로 번역한 諺解本은 한 문으로 된 것보 다는 더 사료로서 의의가 있는 것이다. 천자문도 崔世鎭의 『訓蒙字會』와 丁若鏞의 『兒學篇』은 중국의 천자문을 한국적인 천자문으로 발전시킨 것으로 가치를 가지는 것이다. 開化期 교과서는 종래의 書堂이나 鄉校에서 사용하던 중국의 經典이나 史書를 버리고 새 시대의 教育思潮에 맞도록 편찬된 것으로 한국 교육사 연구에 불가결한 자료다.

개화기 교과서는 새로운 文化運動을 일으키게 하는 原動力이 되었으며, 新學問의 吸收와 국민 정신의 각성을 불러일으킨 소중한 觸媒劑였으며, 오늘 날 교과용 도서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sup>30)</sup> 같은 교과서라도 그 시대의 變化와 발전을 證言해 주는 것이 사료로서 가치를 많이 가지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진열하고 해설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분명한 사관에 입각해서 자료를 분석하여 전시해야 할 것이다.<sup>30)</sup> 교과서와 교육 자료 전시에는 明確한 觀點의 表明이 필요하며, 不明確하거나 曖昧한 觀點을 나타내서는 아니 될 것이다. 그러나 교과서와 교육 자료의 전시도 어느 歷史展示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動機 부여이며, 問題提起인 동시에 하나의 試案으로서 제시되는 역사해석이며 역사 기술이다. 그것을 여하히 評價하고 어떤 參考로서 활용할 것인가는 어디까지나 觀覽者의 自由이며, 그 自主性과 主體性의 問題이다. 그러나 교과서와 교육 자료에 의해서 直接 實感을 느끼고 자주적으로 調査 研究하려는 자에게 있어서는 확실히 有益하고 가치있는 교육 사료로서 훌륭한 博物館 資料가 될 것이다.

## V. 맺 음 말

지금까지 살펴 본 內容을 要約 整理하고 몇가지 提言을 함으로써 結論에 대하고자 한다.

첫째, 우리 나라는 悠久한 역사와 빛나는 文化遺産과 豊富한 教育文化遺産을 가지고 있

29) 康允浩, 전계서, p. 1.

30) 예컨대 일제시대의 교과서나 교육관계 자료가 풍부하다고 하여 그것을 있는 그대로 다 전시해서는 아니될 것이다. 왜냐하면 일제시대의 자료는 대부분 일본 것이기 때문이다. 일본의 민족말살 정책을 보여주는 자료나, 우리 민족의 자주 독립을 위한 교육 자료가 주로 전시되어야 할 것이다.



다. 교육은 나라의 運命을 左右하는 國家之百年大計이며, 국가사회 發展의 原動力이다.

둘째, 博物館은 도서관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教育 理念을 구현하는 學校教育과 社會教育에 이바지하는 현장교육, 직관교육, 체험교육, 실물교육의 장이기 때문에 博物館의 學的 理論 定立이 시급히 確立되어야 하며 아울러 博物館教育은 강화되어야 한다.<sup>31)</sup>

셋째, 學校博物館法을 조속히 制定하여 大學博物館을 비롯한 각급 학교박물관을 국가에서 제도화하고 행정적으로 支援하고 育成하여야 할 것이다.

네째, 教科書와 教育關聯 資料는 도서관 자료일 뿐만아니라, 훌륭한 博物館 資料이기 때문에 우리 나라 教育史를 올바르게 理解하기 위해서 수집, 보존, 연구, 교육에 힘써야 한다.

다섯째, 教科書와 教育資料는 한 나라의 歷史와 文化, 그리고 當代 學問과 知識體系를 結集하여 반영하는 教育手段인 동시에, 文化 傳達媒體로서 역사적 가치가 매우 높은 貴重한 教育文化 遺産이다.

여섯째, 教科書와 教育資料는 때가 늦기전에 教育專門博物館을 설립 육성하며 수집, 보존, 연구, 교육하여야 한다. 근대화, 산업화, 도시화과정에서 귀중한 많은 교육관계 자료가 遺失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亡失의 우려가 많기 때문에, 나이 많은 세대들이 살아 남아 있을 때 早速히 기증, 구입, 영인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資料를 蒐集해야 한다.

일곱째, 教科書와 教育資料는 미술계와 자연계 박물관 자료가 아니고 주로 역사계 박물관 자료로서, 특히 그것도 教育專門 博物館에서 다루어야 하는 資料이기 때문에 時代的으로 展示하되 發展史적으로 主體史觀과 歷史意識을 가지고 解說하여 展示하여야 할 것이다.

여덟번째, 教科書와 教育資料는 1,000만이 넘는 學生과 40만이 넘는 敎職者들 뿐만 아니라 모든 國民들의 關心의 대상이 되는 국민교육의 經典이요 보배이기 때문에 특히 敎師養成 기관인 教育大學을 비롯한 대학과 교육기관에서 敎育과 研究資料로 적극 活用하여야 할 것이다.

아홉번째,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教育大學校 博物館의 法制化하여 教育專門 博物館으로서 적극 育成 發展시켜야 할 것이다.

---

31) 우리 나라는 박물관학도 보급되어 있지 않은 가운데 박물관 교육에 관한 관심이 서서히 일고 있다. 박물관 교육에 관한 논문으로는 다음과 같은 논문들이 있다.

宋春永, 「역사 수업에 있어서 박물관 교육의 방안」, 『古文化』 46, 1995.

鄭 灌, 「국민학교에서의 박물관 교육」, 『역사교육논집』 13·14합, 역사교육학회, 1990.

鄭 灌, 「초등 사회과교육에 있어서 박물관자료의 교재활용 방안 모색」, 『博物館年報』 4, 大邱教育大學校博物館, 1995.

許善道, 「大學博物館의 教育的 機能과 使命」, 『古文化』 28·29합, 1986.